



15世紀頃 멕시코의 부자집에서는 宴會때 奇風으로 毒버섯을 대접했다. 이 버섯을 먹고 코코아를 마시면 幻想의 世界를 漫遊하는 멕시코産 LSD이다.

이것을 먹은 유럽人は 그 體驗談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갑자기 瞳孔이 넓어지고 眼前에 幻像이 나타나기 시작. 寶石과 같이 五色찬란한 宮殿속에 王者가 된 氣分, 그리고 몸이 空中에 둥둥 떠서 날라가듯이, 낙타등에 올라 앉아 砂漠을 넘어가는 것 같았다……』

가난한 貧民들은 이 貴重한 魔力의 버섯을 入手하기 어려운 형편, 만약 運 좋은 者가 이 버섯을 發見하면, 이것을 갈아 즙을 만들고 牛乳나 술에 타서 마셨다. 마신 男子가 꿈 世界로 부터 깨어나면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男子가 그의 小便을 받아 마시고, 또 그 옆에서 기다리던 第3의 男子가 第2의 男子의 小便을 마시고……이런式으로 藥効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 毒 버섯은 紀元 400年前부터 마야 王國(멕시코), 이나 잉카王國(안데스地方)에서 사용해 野生毒버섯 테오나나카도르(6~7個 生

奇食 奇飲

朴 同 玄

〈德成女大教授〉

食하면 7色の 色彩幻覺이 나타난다. 一名『요술버섯』, 혹은 같은 種類이지만 말똥(馬糞)에서만 자라는 『聖者의 버섯』 등이 있다.

마야王國에서는 옛날 神殿에 美女를 바치고 그 人皮를 빌려 神官이 입고 춤을 추는 儀式이 있었고, 잉카王國에서는 美女의 內藏을 손으로 들어내고 그 鮮血를 뿌렸다. 이때 美女의 苦痛을 덜어 주기 위해서 毒버섯을 麻醉藥으로 사용했고 혹은 神官自身도 이를 먹었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大麻實(마리화나)를 吸煙하는 靑少年, 演藝人들의 中毒事件으로 話題거리가 된 일이 있지만, 이 大麻草의 魔力은 時間과 空間觀念이 狂의으로 變하고, 判斷力을 混亂케 하고 결국은 記憶力과 協調性에 障害를 招來하는 무서운 亡國의 飲食이다.

옛날 (B.C. 241年頃) 中國에서는 華陀라는 名醫가 大麻實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하고 麻醉시킨 後 盲腸을 手術한 例가 있으나 麻藥으로 는 사용하지 않았다.

料理秘法으로 有名한 이야기 中에 中國의 한 조그만 한 동네에 『兒豚 집』으로 有名한

料理士가 있었다. 그가 전 兒豚은 뼈속까지 녹아버릴 정도로 부드럽고 연하고 또 맛도 格別.

보통 뼈속까지 무를동안 찢려면 적어도 1週日은 걸린다. 그런데 그는 단 하루밤이면 된다.

이말을 듣고 높으신 어른들이 이 동네를 찾아와서 그의 兒豚찜을 먹었다.

과연 맛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秘法을 알려고 部下를 시켜 名人의 집에 入住를 시켰다.

얼마 後 그 秘密을 알아 냈을 때는 모두들 아연질색하고 말았다. 하는데, 그 秘法이란, 料理하기 前날, 돼지를 하루종일 똥통속에 담구어 두었다가 이것을 料理한다는 것.

아무리 秘法이라 할지영.

『이렇게 不潔해서야……』

하고 名人의 목을 잘라 버렸다는 이야기.

南太平洋 불네오 島 住民들도 똥통속에서(便所 울타리 안에서) 돼지를 길르고 있다.

우리 나라 濟州島의 돼지가 또. 一味라는데, 이게 똥통속에서 길러지고 있다.

筆者 이 光景을 目擊하고 그 後 一切 濟州島에서 돼지 고기를 안먹기로 했다.

日本 東北地方 一部에서는 지금도 便所의 구더기를 다려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 胃腸이 튼튼해진단나?

그런가 하면, 女子의 小水는 물기가 많고, 肥料로는 弱하지만 사람이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한다. 특히 處女인 것은 糞劑로 中國에서는 옛부터 飲用해 왔었다. 너무 많이 마시면 胃腸을 버린다고 하니 조심할 일.

목욕탕의 물을 매일 두 잔씩 마시면 感氣가 들지 않고, 病도 걸리지 않고 身體를 튼튼하게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女湯의 물에 限한다고, 女湯이면 아기들 오줌도 多量 섞여 있

을지 모르니까 좋을지도 모른다.

참 奇飲中の 奇飲!

이런 일도 있다.

소(牛) 입에서 줄줄 흐르는 침도 不老長壽藥이라나? 이 침을 그릇에 담아 술에 타서 데워서 마신다. 營養도 좋고 많은 酵素가 포함되어 있으니 消化促進劑가 될 것 같기도 하다.

全州 비빔밥의 秘傳은 肉水에 쌀을 안쳐 밥을 지어 만드는 것이 原則이라고 한다. 요즘은 밥에 肉水를 부어 비비고 있는데 이것은 非主流式.

沖繩에서는 蛇飯이 有名하다. 스테미너 飲食으로서 最高, 蛇飯을 짓는法은 이렇다.

솥속에 몇마리의 산 뱀과 쌀을 넣고 불을 쐬다. 솥뚜껑에 몇개의 구멍을 뚫어 놓으면 뱀이 구멍밖으로 머리만 내놓고 悶死하는데, 밥이 다되면, 목을 잡아 당긴다. 그러면 뼈만 빠져 나오고 살은 솥속에 훌딱 벗겨져 남는다.

뱀 魂魄가 밥에 스며들어 精氣를 얻는다고.

아프리카의 베토원族은 結婚式 때 닭속에 鷄卵을 가득 넣고, 그 닭을 羊속에 넣어, 그 羊을 통채 낙타속에 넣어서 불에 구어 먹는다. 이게 스테미너 料理로 天下一品이라 한다.

몸이 맹렬하게 따듯해지는 飲食으로는 狼肉이 좋다고 한다. 우리나라 補身湯도 몸이 따듯해지고 精力에 좋다는 點, 어딘가 共通한데가 있다.

病的飢餓症이란 病이 있다.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奇奇한 病, 적어도 하루 15時間은 食事に 消費해야 하는 病. 마슈·리킹이란 한 少年(12歲)은 6日間 174.18kg (大人 3人分の 體重)를 먹었다는 例가 있다.

독일의 요한켈러 라는 男子는 42日間에 큰 황소 한 마리를 불고기해서 혼자 다 먹은 大食家가 있었다.

多渴症이란 病은 계속 마셔야하는 病, 하루 54리터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다는 病이다.

아프리카 土人青年이 旅行길에 친구집에 留宿했다. 이튿날 아침, 암탉 料理가 나왔다. 土人은 친구에게.

『이게 암탉 아니냐?』

고 물었다. 친구는

『아니야 그렇잖아』

하고 對答, 土人은 한 배 꼭차게 잘 먹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어느날 土人과 친구가 다시 만났다.

『자네 좋아하는 암탉 안먹겠나?』

고 친구가 권하자 土人은 암탉은 먹을 수 없어 하고 거절했다. 친구는

『요즘 世上에 그까짓 타부 같은 것 지킬 필요가 어디 있느냐? 지난번 우리 집에서 암탉料理 실컷 먹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은 土人은 별안간 경련을 일으키더니 24時間도 못되어 죽고 말았다. 타부의 魔術의 效果란 참으로 神奇한 일.

印度, 요가敎의 한 長老, 이양반 이름이 굉장히 길다. 즉. 『라마슈마나산드라·슈리칸터·라오』氏, 나이 76세 때.

朝食으로 유리조각. 點心에 쇠뿔. 저녁은 보트와 낫트. 그리고 한 컵의 黃酸을 마셨는데, 속이 좋지 않으면 約 1리터 정도의 물과 시안化合物을 마시면 낫는다는 이야기.

黃酸이나 시안化合物은 모두 무서운 劇藥이다.

그런가하면 英國에서는 녀달짜리 부들犬 한 마리가 못통을 업질러 이것을 全部 먹었다. 開腹手術하니 61개의 못이 나왔다 고.

廣東料理의 珍品中 『모기눈알』로 만든 料理가 있다. 이 눈알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면.

中國 南部나 南洋地方의 박쥐 巢窟에서 박쥐똥을 모아 물에 씻어 눈알만 건져낸다.

박쥐는 하룻밤에 몇萬마리의 모기를 잡아먹으니 糞量도 상당한 量, 洞窟속에 黑褐色의 똥덩어리가 1~2m 높이까지 싸인다고 한다.

수프 속에 눈알을 쟸으면 바삭 바삭하는 觸感이 一品이라고 한다.

中國에서는 옛부터 내려오는 不老長壽飲食中. 대추알을 處女 陰丙에 3日晝夜넣어 두었다가 먹는 風潮가 있다.

에로틱 하면서 로맨틱 하기도 하다.

紀元 300年頃 西晉 武帝治也 後半期 10年間은 戰爭도 끝나고 世上은 泰平하여 天下의 富豪貴族들이 首都 洛陽에 모여 갖은 잔치와 食道樂의 香宴이 끝칠날이 없었다.

이때 洛陽의 貴族 王濟는 武帝를 저녁招待할 때 알몸이 들여다 보이는 美女 백여명을 參席시키고, 山海珍味에다 사람 것으로 키운 폐지고기, 노예가 술독을 겨안고 體溫으로 發酵시킨 술을 마시게 했다는 時代이다.

이야말로 高貴한 珍味中の 盡味.

이때 胡毋輔子라는 者가 郡太守로 任命되자 每日 밤, 酒色으로 세월을 보내고 머리를 길게 길러 오늘의 長髮族같이 하고 친구와 함께 알몸으로 大路를 활보했다고 하니 現代版 스트리커들을 無色케 할 時代였다.

明나라, 萬曆時代 때는 男性으로 機能을 잃은 宦官들이 차차 身分이 安全되니까 이제는 性器復活을 願하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人間の 本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소나 말의 性器를 몰라서 먹었다.

自己 性器 復活에 좋을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중 福建省에 사는 宦官 高宗은 苛酷한 稅金을 짜 낸者로 有明하며, 특히 어린아이 腦髓가 性器再生에 좋다고 해서 아이들을 머구 殺害한 無賴漢으로도 有名한 記錄이 있다.

水滸誌, 西遊記, 三國誌演義, 金瓶梅는 明나라 四大奇書로 이름난 冊이다.

金瓶梅의 主人公 西門慶과 潘金蓮의 情事는 읽는者로 하여 아드레나린發作을 일으키지 않는이가 없을 정도이다.

西門慶은 父親의 店舖를 相續받아 藥房을 경영하고 돈벌이가 좋아지자 典當舖, 비단장사, 소금都賣商, 運輸業, 까지 손을 벌려 굉장한 富者가 되었다.

집에는 第1夫人(吳月娘)을 비롯하여 第6夫人까지 거느리고, 潘金蓮은 그 第5夫人에 해당한다.

이것도 모자라 侍女 春梅와 다른 愛妾들의 女從까지, 나중에는 친복부하의 夫人까지 손을 내는 色漢이었다.

이中 潘金蓮과의 情事는 中世 性文學의 絶頂이다.

결국 西門慶은 狂의인 潘金蓮의 性要求의 포로가 되어 強精劑와 媚藥으로 中毒, 性器가 萎아터져 33歲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만다는 이야기.

이때 사용한 強精劑는, 明나라 世宗 때의 기록을 보면 陶文仲이란 者가 紅錯丸이란 強精劑를 만들어 世宗께 上呈한 것과 同一한 것으로 본다.

處方을 보면 이것 또 괴짜이다.

10代 少女의 月經과 半熟梅實을 불에 구운 것(鳥梅라 부른다)과 粉乳, 辰砂, 南蠻松脂, 그리고 糞尿를 配合, 불에 고을리면서 반죽하여 丸藥으로 만든 것이라한다.

世宗은 이藥을 만들기 위해서 8~14歲의 童女 300名을 宮廷에 呼出한 일도 있었다.

世宗 다음 穆宗도 이藥을 愛用하여 일찍 死亡했고, 다음 다음의 光宗도 紅錯丸을 먹고 急死했다는 說이 있다.

어쨌든 強精劑는 옛이나 지금이나 適用하면 좋지 않은 모양이다.

食道樂으로 有名한 文豪는 역시 알렉산더·뒤마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

몬테그리스토伯爵, 三銃士, 등으로 年收積으로도 10億圓이 넘었을 거라고 傳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偉大한 文豪는 이것을 全部 生前에 湯盡해버리고 末年에는 『料理大辭典』의 印稅까지 先拂받아 먹어치워 버렸다.

물론 이辭典도 그가 죽고난 3年後에 發刊되었지만.

病으로 다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浪費家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터무니 없는 소리, 내가 시골에서 파리로 올라올 때는 金貨 한 장밖에 갖지않았을 뿐. 그로부터 몇10年 마시고 먹고 놀고 그리고 여전히 金貨를 갖고 있던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그의 주머니에서

『나의 全財産인 한 장의 金貨』

하고 꺼내어 보였다.

그의 아들 小뒤마(檜姬의 作者)는 知的面에서는 우수하지만 飲食, 즉 食道樂面에서는 아버지 大뒤마가 훨씬 위다.

※ 奇飲奇食에 관해서는 술한 例가 있지만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丙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愛讀者 여러분에게 食道滿福을 祈願하면서 이만 끄칠까 한다.